스스로만 속는 영적 위장술

(열왕기상 14:1~20)

1. 그 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2.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3. 그대의 손에 떡 열 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4.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5.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 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6.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네게 전하리니
7.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8.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9. 네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스스로만 속는 영적 위장술>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스스로만 속는 영적 위장술'

위장(僞裝)은 본래 나 자신의 정체나 모습을 드러나지 않도록 거짓으로 꾸미는 일이라고 사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의 뜻을 살펴보면서 인상적인 것은 나를 감추는 것인데 전쟁터에서 전술로도 쓰이고 정치판에서도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원군 이하응은 '궁도령'이라는 별명을 달고 남의 집 잔치마당에서 구걸까지 하는 행동으로 정적들로 하여금 안심하도록 해서 마지막에 정권을 차지하였습니다. 제갈공명의 이

야기 속에서도 나오고 전쟁의 역사 속에서 위장술로 전쟁을 이긴 모습들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위장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적'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위장술을 쓰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불신앙인임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위장술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위장술을 쓰고 있는데 위장술을 쓰는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서 영적인 위장술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라는 가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죄인의 모습 그대로 나가서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데 대체 누가 위장술을 쓰는 것이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장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연해 있고 또한 이 위장술로는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만 속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위장을 하면서 그 위장이 먹혀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들이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어보이는 위장술이 만연하게 된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나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위장술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장하고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완전히 속고 있는 것이지요. 위장한 모습이 진짜 나 인줄 아는데 기가 막히는 일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로 만나주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여로보암의 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상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이 사무엘에게도 버림을 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삼상 28장에 사울은 사무엘이 죽은 뒤에 다급한 일이 벌어지자 왕의 신분을 숨기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여로보암이 그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들 아비야가 병들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금송아지가 아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왕이 될 것임을 예언했던 선지자 아히야를 찾아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금송아지에 붙이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용했던 것이 비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자기 아내를 보내는데 이미 이 시점에서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것은 아내이지만 여로보암의 생각과 의도를 품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여자로 위장을 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또한 아내도 왕비의 위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가정의 여자처럼 위장했지만 늙어서 눈까지 먼 아히야를 속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히야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위장하고 올 것임을 알려주시고 여로보암의 가문이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이렇듯 여로보암의 위장과 가문에 대한 멸망 예언이 붙어서 나오는데 이 본문의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이 여자로 위장을 하고 아내를 보통 여자로 위장시켜서 아들의 병을 고치려고 했던

것과 같은 방법의 위장술로 신앙생활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들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위장술 속에서 자기를 속이고 살고 있는 사람들과 여로보암 가문의 멸망의 예언이 붙어 나오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길거리에 나뒹구는 배설물처럼 말갛게 치워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거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갈갈'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구르다'라는 말입니다.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사람과 짐승의 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위장술을 써서 자신을 감추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거리에 나뒹구는 똥처럼 여기실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위장술을 쓰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판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첫 번째로 관계하는 대상 앞에서 '나'라는 의식이 생겨나게 됩니다. 너 앞에서만 나는 나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대상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라는 의식은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상이 하다못해 애완용 개이거나 우뚝 선 나무일지라도 내 마음이 첫 번째 대상을 만날 때에 '나'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의 위장이 뜻하는 바와 그리고 그 위장이 곧바로 여로보암 가문의 멸망과 이어져 있는데 여로보암은 첫 번째 대상으로 삼은 것이 왕의 자리였습니다. 나의 왕 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민심을 끌어 모을 필요가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였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것이 위장이고 오늘도 아들의 죽을병을 고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숨기며 나가는 모습도 그러합니다. 이러한 위장의 모습이 상징적으로 영적 위장술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신앙인의 멸망이 위장술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이것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던 사람이 인생에서 돈이 최고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마음의 첫 번째 대상이 됩니다.
첫 번째 대상이 다른 대상들과 다른 점은 이것이 내 마음에 최종적인 만족과 기쁨을 줄 것이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서는 엄마를 나의 궁극적인 기쁨과 만족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엄마의 젖을 빨며 나를 찾고 자라면서 돈 권력 남편이나 자녀 등이 첫 번째 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첫 번째 대상 앞에서 나를 찾게 됩니다. 나는 회사 직원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아빠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지만 제일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대상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내가 부자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돈'이라는 첫 번째 대상 앞에서 나로 태어난 것입니다. 자식, 돈, 승진, 권력 등의 나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앉아 있습니다. 가지가지 이유로 이 세상의 대상들을 첫 번째 관심사로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몰려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께 의롭다는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집단 최면에 걸린 듯이 위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만 기쁘고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으로 이제 돈을 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승진이나 건강을 구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바로 위장술이고 이러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지도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첫 번째 대상이 되셔서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어야만 한다고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행위가 없어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돈 건강 자녀의 형통이 있어야 기쁘고 만족하다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위장을 하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이렇게 위장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길거리에 구르는 똥처럼 여기셔서 삽으로 떠서 말갛게 치워버려야 하는 존재로 보십니다.

본문을 더 보면 결국 아비야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는 것을 축복이라고 하시며 13절에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 대상으로 여기지 못하는 부모 밑에 태어나서 사느니 일찍 죽는 것이 축복일 수 있다는 것인데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위장술을 싫어하십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것은 첫 번째 관심으로 여겼던 돈 자녀 건강 등에 마음을 두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되게 하는 첫 번째 대상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으면 마음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통해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데 이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됩니다. 이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돈이 첫 번째 관심사였고 믿은 후에도 그러하다면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태어난 나로서 하나님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의로움을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위장이고 목사님들이 이러한 위장술을 선포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사업이 안 되면 밤새도록 울고 불며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업해서 벌게 될 돈을 믿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기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은행에 돈을 잔뜩 맡겨 놨다면 홍수가 나서 집이 떠내려가더라도 큰 슬픔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은 돈이나 건강이 없다고 슬퍼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로보암의 위장술과 반대에 섰던 다윗을 예로 들며 기준을 확립합니다. 다윗이 가졌던 기준은 하나님이 첫 번째 대상이 되셔서 그 앞에서 나로 태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모든 명령을 지킬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나로 태어난 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돈이나 건강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마음이 첫 번째 대상으로 삼은 것은 돈이나 건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23장에서 이러한 율법주의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속에는 썩은 시체가 가득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준이 제시되고 그와 반대된 여로보암의 멸망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끊임없이 반복될 것인데 사실 이 이야기가 성경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첫 번째 대상으로 여기고 나로 다시 태어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자꾸 이 세상 것들에 끌려가기 때문인데 십자가가 복음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십자가 생활화하기가 어렵다는 메일을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십자가 형상을 눈으로 보는 것은 의미가 없고 마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남미의 축구 선수들이 골을 넣으면 십자가 목걸이에 입을 맞추는 것은 의미가 없는 행동입니다. 마음으로 십자가 보기를 1분간 중단한다면 그 1분간 세상이 들어옵니다. 내 마음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보게 되고 다른 것을 보면서 십자가를 찾기 때문에 십자가 생활화가 어려운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온 다른 이름들을 쳐내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계속하여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데 운전 할 때도, 회사에서 사장님 만나고 부장님 만나고 부하 직원을 대할 때, 가정에서 아내를 만나고 자녀를 만날 때에도 항상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봄이 지속되면 삶 전체가 쉬워지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순간이라도 십자가를 봄이 끝나면 세상이 들어와서 내 마음이 그것을 바라보고 붙잡게 되고 그러는 동안에는 십자가를 보기도 어려워지고 죽어지지도 않고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에 다시 말씀을 들으며 내 마음에 들어온 이름들을 쫓아내야 하는데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죽는 것은 날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다시 태어남이 없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첫 번째 대상이 되어서 내게 만족과 행복을 주리라고 여기면서 교회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다 멸망으로 끝날 위장술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로보암처럼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이 있기 때문이고 십자가로 돌아오고 십자가를 생활화할 날이 올 것을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 위장술은 내 마음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구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외의 모든 대상에 대하여 죽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대상이 될 만한 이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인데 이것이 성경의 전부입니다.
오늘 복습이자 선행 학습인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도 성경을 읽어가며 날마다 다시 태어나는 자들로 사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언제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내가 태어나서 살 수 있게 됨으로 멸망의 길로 정해진 위장술의 삶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